

일본 문학을 번역하는 번역가이자 최근 『파도의 아이들』을 펴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 동문을 만나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적성을 찾았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에게 해 주고픈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프로젝트 '줍깅'에 우리신문 기자가 직접 참여해 5박 6일간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대학주보



국제캠에서 제1회 TEDxKyungHee <비움 | 틈 | 채움> 개최

【국제】지난 7일 예술디자인대학관 A&D홀에서 제1회 TEDxKyungHee <비움 | 틈 | 채움> 이 개최됐다. TEDxKyungHee는 '가치 있는 생각의 전파'라는 TED의 이념 아래 우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연 기획 동아리다. 김서영(포스트모던학 2020) 회장(위 사진)은 "강연의 시초이자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TED의 불꽃을 경희대에서도 피울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19명 학생들의 열정 하나로 많은 고생 끝에 세워진 강연이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진=TEDxKyungHee 동아리 제공)

박서연 기자 syeon153@khu.ac.kr

치대 41명 임상실습 서명 위조로 유급 추가 징계 여부 논의... 중징계도 예상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서울】치과대학(치대) 치과병원 원내생이 임상실습 참관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본과 4학년 41명이 F학점을 받았다. 의·약 학계열 학생은 낙제를 받은 과목이 있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 없다. 치대는 이번 사태의 경중에 따른 추가 징계를 논의 중이다.

본과 4학년 85명 중 41명이 각 진료과 임상 수업에서 임상실습 참관(옵저베이션) 사실을 기록하는 '케이스북'을 조작했다. 환자 진료 참관 수업의 레지던트 확인 서명을 원내생 임의로 한 것이다.

임상실습 담당 레지던트는 참관 수업 확인 서명을 하려던 중 서명

이 일부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치대는 모든 임상실습 수업을 전수조사했다. 각 수업별로 적발된 학생은 수업 평가항목 중 참관 영역에서 0점 처리됐다. 0점 처리를 받은 영역으로 인해 과목 총점이 낮아졌고, 과목별 이수 기준인 57점(D-)을 넘지 못해 F학점을 받았다. 그렇게 자동으로 유급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사태로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서명 위조 사실과 유급 처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비현실적인 실습 요구사항과 불공정한 기회 분배 등의 이유로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외과는 필수 발치 수가 한 달에 80개"라며 "전체 학생이 한 달에 6800개씩은 뽑는다는 것인데, 실

상은 외래에 발치가 하루에 4개쯤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몇몇 레지던트는 친분이 있는 학생에게 서명을 몇 개씩 더 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학생은 "모든 진료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순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일부 진료과에서는 처벌을 봐줬고 운 좋게 해당 진료과 위조자들은 살아남았다"고 했다. 일부 학생은 본과 4학년 85명 중 41명이 아닌 60여 명이 서명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같은 위조자더라도 유급 처분 여부가 다르게 적용된 것은 '유급 처분 기준 = 서명 위조 여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명 위조로 임상실습 수업 평가 항목 중 하

나인 참관 항목에서 0점 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과목 성적에 영향을 줘 F학점 기준인 56점 이하가 나온 것이다. 치대 정종혁(치의학) 학장은 "자수한 학생은 일주일 정도 만회할 기회를 다시 줬다"며 "해당 항목이 0점이라도 다른 항목 점수가 높아 학점 인정 기준점을 넘은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치대는 서명 위조 적발로 경징계를 받아 해당 평가항목 성적이 0점 처리된 것에 더해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정 학장은 "중징계 대상자를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대 신승운(치의학) 교무부학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교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의대 유급 완화 조치 성적처리 학년제로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서울】지난 10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우리학교 의과대학 학사제도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은 전공 과목에 하나라도 F 학점이 나오면 유급이다. 하지만 올해 의과대학생 모두가 수업을 거부하며 전원이 유급될 상황이 벌어졌다. 의과대학의 모든 학년이 유급되면, 전체 의료 공급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과대학생 유급을 완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학기 차원의 유급을 막기 위해 아예 성적 처리 방식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꿔 성적 처리 기간을 늘렸다. 또한 F 학점이 아닌 I(Incomplete) 학점 제도를 도입해, 다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했다.

더불어,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교육부의 발표에 의과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새 제도를 따른 방향으로 우리학교 의과대학 시스템 변경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런 정책은 말이 안 되는 조치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료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에 있어 이를 반복할 퇴로를 만들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 계속 더 꼬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